

**2018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오후)**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진하게 마킹하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 1] (가)의 ‘주인공’ 과 ‘파수꾼’ 그리고 ‘주인공’ 과 ‘촌장’ 사이의 갈등 양상의 차이점을 (나)를 활용하여 기술하고, (가)의 [A]에서 ‘파수꾼’ 이 보인 태도를 (다)의 ‘우상’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다음은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 을 재구성한 내용으로 앞부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의 낮은 평지에서 파수꾼들이 이리 떼의 습격을 알리기 위해 들판을 감시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를 들으면 겁을 먹고 대피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다. 새로 파견된 ‘주인공’ 역시 이리 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은 망루 위에서 이리 떼가 나타나는 곳을 바라보다 이리 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진다. 그 사실을 모르는 ‘파수꾼’ 은 ‘주인공’ 에게 양철 북 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파수꾼: 그래. 양철 북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주인공: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떼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죠. 이리는 아무 데도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 아래에 있던 파수꾼들은 “이리 떼다!” 외쳤어요. 이리 떼라곤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파수꾼: 그럴 리 없어. 년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닳으로 구름을 잡겠다고 헛소리를 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떼가 없다는 소리 하지마라.

[A] **주인공:** 여기 낮은 곳에 계시니까 모르시죠. 하지만 저 높은 곳엘 올라가면 이리 떼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파수꾼: 뭐라고, 망루에 올라갔다고? 거기는 지금까지 촌장님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 정말 큰일 날 일을 저질렀구나. 촌장님들은 늘 옳았어. 나는 지금 촌장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중략)

(‘주인공’ 은 ‘촌장’ 과 단둘이 대화중이다.)

주인공: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 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난 알고 있지.

주인공: 그런데 왜 파수꾼들에게 숨기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략)

촌 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닳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주인공: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망루 위에 올라가서 이리 떼는 흰 구름이라고 외치겠어요.

(후략)

<다음 장 계속>

(나)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 판단은 존재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다.”, “경기장에 열 두 명의 배구 선수가 있다.” 는 사실 판단이다. 사실 판단은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므로 참과 거짓이 분명하고,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가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여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 판단은 어떤 현상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좋다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는 성실하고 착하다.”, “그 운동선수들은 모두 기량이 우수하다.” 는 가치 판단이다. 가치 판단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저속함 등 사람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현상을 파악한 것으로, 관련된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

사실 판단 간의 충돌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논쟁이 가치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특수하고 일시적인 가치보다 중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개별 집단의 이익보다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체에 이롭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다)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인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 이라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한 지식의 대혁신을 꾀했다. 베이컨은 중세기까지 서양 학문을 주도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거부하고, 과학의 실험 정신에 근거한 새로운 학문 방법을 주창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식 연역 추리로는 결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없으며, 기껏해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귀납법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는 인간에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네 가지 유형의 편견을 우상(偶像)이라 부르며 타파할 것을 역설한다. 이 중에서 종족의 우상은 자연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을 말하며, 극장의 우상은 기존의 전통이나 권위를 맹신하는 데서 오는 편견을 말한다. 다음으로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성격, 취미, 습관의 차이 및 자라온 환경과 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일컫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우상은 잘못된 말과 소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편견을 의미한다.

<다음 장 계속>

[문제 2] (가)의 ㉠의 근거를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가)의 ㉡에 대한 입장을 (가)와 (다)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고,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돈, 물건, 시간, 노력 등을 소모하는 일을 소비라고 한다. ㉠ 소비는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고,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비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품을 써버리는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의 ㉡ 낭비를 초래하는 식품의 과소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과소비는 비만과 같은 국민 건강의 악화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비만은 개발도상국과 빈곤층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남는 설탕, 기름, 동물성 지방을 개발도상국에 값싸게 수출하였고, 이의 과잉 섭취로 인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식습관이 서양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부유층에는 비만이 비교적 적은 데 비해 빈곤층에는 비만이 확산되었다. 둘째, 식품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

사람들은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으면 그 나머지 물건은 모두 쓸모없는 줄 안다. 그러나 무용지물로 여겨졌던 물건도 사용하면 유용해진다. 아무리 유용한 물건이라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돌아다니다 쉽게 고갈될 것이다.

검소한이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이지, 자기에게 없는 물건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일컫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 같은 물건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먹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 정말 우리의 검소한 풍속 때문이겠는가? 이것은 그 재물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진다.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물을 퍼내면 우물에는 새 물이 차 늘 가득하지만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말라버린다. 이와 같은 이치로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일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여인이 비단을 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릇이 찌그러져도 이를 개의치 않으며 기교를 부려 물건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 나라에는 공장과 목축과 도공이 없어져 기술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음 장 계속>

(다)

낭비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선 모든 생산과 소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사치품, 모든 유행, 모든 음식 쓰레기가 낭비이며, 공장의 과잉 설비 역시 낭비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생필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물품 이외에 더 이상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동물의 생존 방식이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더 이상 문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어느 유목민 부족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버리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별다른 생산 수단 없이 수렵과 채집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리고 손에 넣은 것을 모두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단번에 소비한다. 그들의 삶 속에는 경제적 계산도, 저장도 없으며, 모든 것이 완전히 소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축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청빈한 선비 정신을 기리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모든 부를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사고가 문화적인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생각할 때가 되었다. 역사상 모든 사회는 언제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낭비하고 탕진하며 소모하고 소비해 왔다. 이 초과분의 소비에 의해서 문화가 생산되었고, 소비 행위 자체가 바로 문화였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낭비는 결코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 발전에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라)

르네상스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문화 운동에서 물질적인 진보 능력과 정신적, 윤리적 진보 능력은 서로 나란히 발전하였다. 그 후 인간의 윤리적 힘은 쇠퇴하였으나 물질적 영역에서는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윤리의 쇠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전혀 윤리가 없거나 최소한의 윤리라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런 천박한 문화관이 사회 지도층이나 일반 여론에서도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우리가 윤리적인 문화관을 포기하였을 때 이상은 현실에서 유리(遊離)되고 말았고, 단지 경험에서 이끌어 낸 지식만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상을 상실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윤리적인 이상을 내포한 신념만이 자유로운 행동, 즉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다. 윤리적인 이상이 없다면 물질적 현상 자체와 우리 사이의 간격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상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어 있던 욕망과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게 된다. 그 결과 현대인은 물질적 현상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감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많은 문제에 대하여 충동적이다.

인류의 문명을 결정하는 관건은 물질적 현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문명인이 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는 윤리적인 이상 속에 마련된다. 우리는 윤리적인 이상을 통하여 물질적 현상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인간도 사회도 윤리적 이상에 의해서만 물질적 현상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배력을 지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끝>